

24.1월 ECB 통화정책회의 결정에 대한 시장 평가 및 반응

1 시장 평가

24.1월 ECB 통화정책회의 주요 내용

- ◆ (정책결정) ① 정책금리 동결(수신금리 4.00%) ② PEPP 보유 규모를 금년 하반기부터 매월 75억유로 축소하고 금년말 이후 재투자 전면 중단(종전과 동일)
- ◆ (기자간담회) ① 정책위원 간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컨센서스가 형성 ② 기초적 물가는 지난 12월에도 둔화세를 지속 ③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높지만 최근 들어 하락하는 조짐

□ 주요 시장참가자들은 정책결정문 자체는 대체로 중립적이었으나 Lagarde 총재의 기자회견이 시장 예상보다 다소 dovish한 것으로 평가

- ECB가 자체 모니터링하는 유로지역의 임금 지표*가 최근 하락하고 있으며 23.12월의 물가 상승률 반등폭이 예상보다 약했다고 발언한 점은 물가 인식이 기존보다 낙관적으로 변했음을 보여줌

* 기존의 후행적인 공식 임금 데이터는 높은 수준이나, 최근 임금 통계를 일부 반영하는 내부 wage tracker 수치는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

- 홍해에서 진행중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고(moderate) 근원 물가 내에서 대부분 항목이 하락하고 있다는 등 디스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수차례 언급(Natwest)

□ 다만, 일부는 Lagarde 총재가 금리인하 시기에 관하여 최근 다보스 포럼 입장을 고수*하여 **시장의 조기인하 기대를 차단**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

* 지난 17일 다보스 포럼에서 Lagarde 총재는 금년 여름에 금리인하가 가능하겠으나 데이터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

□ 한편 **상당수 투자은행은 첫번째 금리인하 시기를 24.6월로 전망**하는 가운데, **선도금리시장**에 반영된 **24.4월 인하 가능성**이 전일보다 **확대**(49% → 70%)

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의 ECB 최초 금리인하 시점 전망

	24.3월	4월	6월	9월
투자은행 수(총 23곳)	1	6	13	3

2 금융시장 반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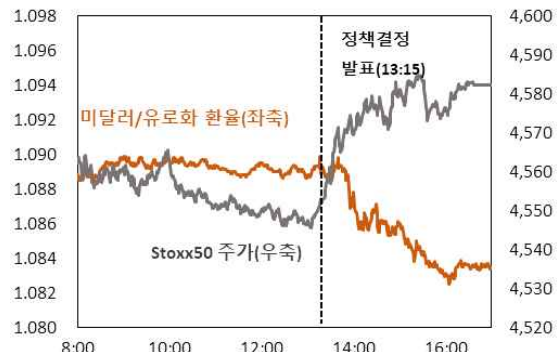
□ **독일 국채금리(10년물)**는 Lagarde 총재의 기자회견이 dovish했다는 인식, 장중 미 국채금리 내림세 등으로 단기물(2년물, 전일대비 -9bp) 중심으로 **하락**(-5bp)하고 **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**는 **축소**(154bp, -2bp)

○ **유로화 환율(US/€)**은 기자회견 이후 정책금리 조기인하 기대가 확산되면서 **하락**(1.0837, -0.44%)하였으며, **주가(Stoxx 50)**는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정책결정 이후 **상승 반전**(4,582, +0.40%, 런던 시각 17:00시 기준)

독일 국채금리(10년물) 및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¹⁾



유로화 환율 및 주가(Stoxx50)



주 : 1)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- 독일 국채 10년물
 자료 : 블룸버그